

<하기 글은 2017년 11월 2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올해의 마지막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정기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에 모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3일 진행된 '제 3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11월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링크 : [지역주민 소통의 장! 『제3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



먼저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흡연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임직원 외에도 상주 협력사에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계도 활동과 전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에서 진행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삼성전자는 △2017 삼성전자 드림락(樂)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화성·용인지역 미술가 초대전 <화롱점점> △지역 어르신 대상 효도(孝道)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추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월에 진행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중 '겨울팻 아삭아삭 사랑나눔 김장축제'는 김장에 쓰이는 배추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김장축제에 참여하고 이웃들에게 직접 김치를 전달한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감사의 인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요청 사항과 기타 의견을 공유하는 자유 토론 시간을 끝으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11월 정기회의가 마무리 되고, 기흥동 고광범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흥동 고광범 위원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어느덧 2017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회의 내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을 보며 지역사회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계속될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